

민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を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매주 둘째주 화요일 5 시: 어린이 참선 법회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 시 - 오후 1 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새벽기도: 아침 6 시 30 분 - 7 시 (아침예불 및 참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사찰에서 아침공양을 제공 합니다.)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지혜있는 수행자
 이 세상 정복하고,
 천상 세계 정복 하고,
 죽음과 고통 있는
 야마신 세계까지 정복하네.
 꽃을 찾아 나선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발견하듯
 지혜 있는 수행자
 지혜 완성(Dhammapada) 이르는 길 발견하네.

The wise student shall conquer this world,
 and the world of the gods,
 and also the world of Yama,
 of death and of pain.
 The wise student shall find the
 DHAMMAPADA, the clear Path of
 Perfection, even as a man who seeks flowers
 finds the most beautiful flow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불교와 효: 오늘을 슬기롭게 사는 길

1 효의 개념

효는 모든 덕행(德行)의 근본이 되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바른 도리인 것이다. 만일 인간으로서 효를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시대적 변천에 따라 효의 개념은 다소 다른 점이 있겠지만, 부자자효(父慈子孝), 즉 아버지는 자식을 자애롭게 보살피고 길러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서 그 은혜에 보답코자 하는 길이라고 정의하여 볼 때, 이는 만고의 진리며 인류도덕의 바탕이 된다고 보아 틀림없을 것이다.

『효(孝)』字는 늙을 노(孝=老)와 아들 자(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자식이 아버지를 아랫사람이 웃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教)』字는 잘못을 회초리로 잘 다스려 효도하는 인간을 육성한다는 회의(會意)로서 동양적 교육에 있어서 으뜸이었거니와 오늘날에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므로써 효 및 인간성 교육이 매우 소홀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효의 현상은 필연적으로 확대되어 자기 부모는 물론 가정에서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인 덕행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서구 근대화의 물결은 우리의 빛나는 전통 사상을 뒤흔들어 놓고, 효의 바른 길마저 어지럽게 하였으니, 하루 빨리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을 재정립하여 충효 사상을 확립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밝게 건설해 가야 하겠다.

2 구도(求道)는 큰 효 위해

효에 대하여 그 가치관을 논한 것은 유가(儒家)에서일뿐, 불교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많은 불제자들이 출가(出家)하여 구도의 길에 오르게 됨은, 육도에 윤회전생하는 중생들을 해탈시켜 영원히 상락아정(常樂我淨)의 경지에 머물게 하여, 큰효로써 보답코자 하는 용맹정진의 새 출발인 것이다. 경전에 있는 효행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목련존자의 큰 서원과 부처님의 가호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출한 내용의 우란분경, 신갈라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육방(六方)에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자식이 할 바른 효도의 길과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므로써 뼈에 사무치도록 효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설법을 하신 육방예경(六方禮經), 자기의 미모에만 도취되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옥야를 교화시켜 효녀로 만든 옥야녀경(玉耶女經)이 있다. 또 대보부모은중경(大報父母恩重經)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제에타바나정사(기원정사)에 계실 때, 여러 제자를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는 길에 한 무더기 사람의 뼈를 보시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정중히 배례하셨다. 제자 아아난다가 사뢰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삼계(三界)의 대도사이옵고 四生의 자부이신데 어찌하여 이름모를 뼈무더기에 절하시옵니까?』 하였다. 부처님께서 『아 아난다여, 이 뼈들은 어찌면 내 전생의 조상이거나 여러 대에 걸친 내 부모일 것이므로 내가 지금 절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 자식을 뱃속에 품었다가 낳아 기르고 가르치며 걱정하는 등 열 가지 부모의 큰 은혜가 있음을 설법하여 청중을 감복케 하였으며, 또 불효한 자식 때문에 부모가 탄식하기에 이르게 하면 그 자식은 이 말(言)이 사라지기도 전에 곧 아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모든 부처와 천신도 이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길가에 버려진 남의 뼈를 보고 절하는 사람이 부처님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이는 대자대비의 발로이며 효의 극치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주는 것이다.

3 효는 정토(淨土)에의 길

중생이 모두 성불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함이 불교의 이상이므로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인간 관계의 기본인 효의 생활화야말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에서는 해탈을 염원하는 자비의 목탁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에 울려 퍼지는 한편, 속가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편안함을 합장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효도에 어긋남이 없이 생활함으로써 화목한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니, 가정과 절이 하나가 되어 어느 때 어디에서고 중생계는 효도를 바탕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지상에 정토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리라 믿어진다.

우리는 이제 「고요한 아침의 예절바른 나라」의 겨레로서 부끄럼 없는 밝은 새 삶을 이룩해야 할 때에 이르렀다. 저마다 마음밭을 갈고 일구어 효의 새싹을 심어 아름답게 가꾸어 향그로운 열매를 튼튼히 맺게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월간불광: 김관성의 글

말 똑 신 심

뿌리내릴 수 없는 말뚝은 썩거나 뽑혀; 순간 촉발된 신심은 진짜 발심 아니다

어린 시절 생쥐 곳간 드나들듯 절집에 들락거리며 잣밥을 축낼 때,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다.

“이놈이 말뚝신심이 발동했나?”

‘말뚝이란 한곳에 박아두면 움쩍 않고 있는 물건 아니던가.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심이란 뜻인데...?’ 그냥

집작만 하면서 칭찬이려니 생각하고 다녔었다.

갓 출가한 스님들 중에는 유난히 의욕으로 뚝뚝 똥친 이가 있게 마련이다. 판에는 엄청난 결심을 하고 나선 길인만큼 보란 듯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나 자기가 생각하던 놀라운 경지에 이르고 싶기도 하리라. ‘밤잠을 잔다고? 어떤 생각으로 출가했는데, 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고 언제 수행한단 말이나?’ 이런 심정으로 지내기에, 그 팽팽한 긴장감은 곧바로 옆 사람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바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른 스님들은 “저놈이 또 말뚝신심으로 저러는군!” 하시었다.

어른 스님들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퇴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안다. 팽팽한 긴장감은 옆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지만, 당사자로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결국 자기가 만든 스트레스에 스스로가 무너지면서 급격한 실망감에 빠져 버리는 것. 그래서 ‘밤새 안녕!’이라고 자취를 감춰 버리기도 하고, 또는 “저는 틀렸나 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지는 이들이 생긴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았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어떤 이는 꼭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다. “스님들 사는 모습 곁에서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신을 속이는 말인지 자신이 더 잘 알 것이다. 설사 자신을 기만한 것은 아닐지라도 ‘아직 문고리도 잡아보지 못한 놈’임에는 틀림없다.

어른들은 이런 친구들을 보면 타이른다. “절집에는 오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따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의 이 말씀은 뿌리를 튼튼히 내린 나무가 결국 숲의 주인이 된다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시라.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왕성한 생명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다.

출가자를 나무로 봤을 때, 생명활동이란 곧 수행력이다. 끝없이 탐구하고 정진하는 이가 아니면 절집은 결코 재미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 수십 년을 절에서 보낸 이들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수행의 뿌리가 깊다는 것이다. 결코 자신이 얼핏 본 단면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분명코 있나니.

어른들이 말뚝신심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던 그 묘한 뉘앙스를,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난 깨달았다. 말뚝은 살아있는 나무와 달리 박아놓으면 바로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그것뿐이다. 결코 뿌리를 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썩어버리거나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뿔뿔히 버린다. 책을 읽는 등 외부자극에 의해 갑자기 일어난 신심은 아주 짧은 순간 최고인 듯하다. 그러나 진짜 발심은 아닌 것이다. 아직도 여기저기 떠도는 이라면, 혹시 자신의 신심이 뿌리내릴 수 없는 죽은 말뚝 같지는 않은지 살펴 볼 일이다.

말뚝신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만 한다. 자기 귀에 즐거운 달콤한 얘기가 아닌 쓴 법문도 듣고,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교학이나 선어록도 파고들어가 보며, 때로는 무릎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좌선도 해 봐야만 하는 것이다. 잔머리는 수없이 굴려도 그저 잔머리일 뿐이다.

송강스님 / 서울 개화사 주지

불교교리: 불교와 우주의 시원

불교에서는 우주의 시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주의 시원으로부터 자신들의 교리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어떤 원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 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종교인들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론 불교에서도 우주의 시원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아함의 《세기경》이나 《기세경》 《기세본기경》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은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유익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한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유한 한가 무한한가, 영혼과 육체는 같은가 다른가, 부처님은 사후에 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

이것은 당시 인도사상계에서 상 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중요한 논제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 서는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즉 독화살 에 맞은 사람이 자신이 맞은 화살이 종류, 재료, 성분 등이나 자신을 쏜 사람의 이름, 나이, 가문 따위를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 고 치료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는 치료도 받기 전에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독화살에 맞은 사람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주의 시원처럼 확인할 길 없이 무익하기만 한 논의에 매달리기보다 주어진 현실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참다운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주도...용태영 변호사 추모법회

- “세세생생 큰 공덕으로 남을 것”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운동을 주도했던 고(故) 용태영 변호사 49 재 및 추모법회가 지난 20 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추모법회봉행위원회가 주관하고 조계종 총무원 후원으로 봉행된 이날 추모법회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상운스님을 비롯해 정읍 벽련선원 회주 대우스님, 봉행위원장 용화스님, 유족과 지인 등 250 여 명이 참석했다.

봉행위원장 용화스님은 “불교 종파를 초월해 범불교적으로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에 힘쓴 고인의 극락왕생을 2000 만 불자와 기원한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류택형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원로특별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은 한반도 평화와 불국정도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왔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앞으로 고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스님은 영가법어를 통해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에 앞장섰던 고인의 공덕은 세세생생 큰 공덕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 땅의 중생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은 반드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큰일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태영 변호사는 1975년 1월 15일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을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지난 5월 3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정법 위배 ‘무속행위’ 중징계

초심호계원 ‘불조에 불경’ 이유 ‘멸빈’ 판결

종단에서는 처음으로 ‘불조(佛祖)에 대한 불경(不敬)’을 이유로 멸빈 판결이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스님)은 지난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 72차 심판부를 열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속행위를 한 명안스님에 대해 멸빈 판결을 내렸다.

멸빈 판결을 받은 이 스님은 미등록 사설사암인 대전 지장사 주지로 있으면서, 정신장애가 있는 신도의 자녀를 치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이 신도에게 신긋을 권유,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참석하는 반불교적 행위를 했다. 이번 판결은 “불조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멸빈을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승려법 제 46조 1을 적용한 것이다.

이날 열린 심판부에서 초심호계위원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종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불교의 정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심호계원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호계원에 상소(上訴)할 수 있다. 이날 심판부에는 초심호계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 정념스님을 비롯해 재원, 승오, 경성, 선법 스님 등 5명이 참석했다.

멸빈(滅)은 승적을 박탈하는 최고 징계이다. 치탈도첩(奪度牒)이 같은 말이다. 종헌 127조 1에는 멸빈에 대해 “급부(給付, 발급해 지급했다는 의미)한 승려증을 박탈(剝奪)하고 승적(僧籍)을 말소(抹消)하여 절 밖으로 민척(斥, 쫓아낸다는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설립 토론회 열려: “간섭은 최소화, 지원은 최대화가 정답”

“해외사찰에 대한 종단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화해야 한다.”

“해외특별교구를 신설하려다보니 자연 관리적인 부분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해외특별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 등 총무원 관계자와 해외포교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가 ‘한국불교의 세계화, 해외사찰 활성화, 국제 포교인력 양성’을 입법취지로 마련한 해외특별교구 제정안을 놓고 벌인 이날 토론에는 미국과 캐나다, 인도, 호주 등지의 한국사찰을 지원하고 있는 정우 스님을 비롯해 뉴질랜드 남국정사 주지 동진 스님,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는 허운 스님,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진월 스님과 조주 스님, 사회를 맡은 종회의원 정범스님(육천암주지), 박용규 총무차장, 박종학 팀장, 홍민석 국제팀장, 정석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입법취지는 해외사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한 한국불교의 세계화이지만, 실제로 입법과정에서 해외특별교구의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특별교구 스님들에 대한 권한 인정과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참석자들은 저마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종단내 국제부를 신설하는 것은 종헌사항이므로 종헌개정문제에 걸려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종법에 따라 특별교구를 신설할 수 있으므로, 군중특별교구에 이어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해외특별교구의 교구장을 총무부장이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종헌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해외특별교구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무부장이 교구장을 맡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우 스님은 “그러나 각 교구본사에 등록된 해외사찰들을 특별교구 산하 사찰로 이관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은 만큼 세밀한 점검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운 스님은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총무부에서 해외특별교구까지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종헌을 개정해서라도 국제부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진월 스님은 “국제부와 해외특별교구를 모두 신설해 활용하는 것이 맞다”며 “비교적 체계적으로 해외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불교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해외교구본사 및 대표사무소 설치 문제, 사찰 등록 및 취소 문제를 비롯하여 해외교구 재적승의 구성과 해외파견승 관리 문제, 해외특별교구내 상임위원회 구성 문제, 분담금 중단지원금 후원금 등의 재정운영 문제, 포상 및 징계의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토론회에 앞서 ‘해외교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여론을 수렴, 해외교구 설립의 방향을 잡아가겠다”며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조계종 소속 해외사찰이 140 여개로 집계되는 가운데, 양적으로는 충분히 교구설립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아래 추진 중이 조계종의 해외특별교구 설립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로 알리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디어투데이-

불교사포럼: 승려를 포교승과 수도승으로 구분해, 포교승엔 대처육식도 허용해야 한다

역사학자 이이화 씨 ‘한국불교 미래비전’서 주장: “비구니도 종정. 총무원장 될 수 있는 길 열어야”

“승려를 포교승과 수도승으로 구분해, 포교승의 경우 대처와 육식을 허용해야 한다. 고기 안먹고 술 안마시면서 대중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의 실천이나. 불교가 대중화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승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교승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교 교세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청담, 성철 스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주장을 제기한 이는 바로 민족문제연구소 이이화 소장이다. 이 소장은 6월 28일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4회 불교사포럼에서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조계종사 편찬을 위한 불교사포럼의 네 번째 강연자로 초청된 이이화 소장은 “불교는 융통성이 아주 많은 종교”라며 “수도승들도 분명 있어야 하고, 이들은 당연히 순수한 영역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변화된 세상이 포교승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또한 세상과 단절된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나는 불교, 유교, 도교를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자주 든다”며 “아이가 우물로 기어가고 있으면 공자는 ‘거기로 계속 가면 빠져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부처님은 ‘여기로 오면 사탕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고, 노자는 ‘죽든지 살든지 그것도 지 팔자’라고 내버려 둔다. 사탕이 곧 방편이고, 그것을 통해 진리를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융통성”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이화 소장은 포교승 제도 외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들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이 소장은 “불교 내부의 개혁적으로 우선 비구니 대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비구니가 종정 또는 총무원장, 본사 주지가 되는 길을 종법으로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사찰 건축불사 남발 시급히 개선돼야”-

이 소장은 또 한국불교가 개선해야 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건축불사의 남발을 꼽았다.

“전통사찰에서 건축불사가 남발되고 있다. 금산사의 경우 분지에 대웅전과 요사 등이 적절하게 배치돼 있었는데, 대웅전 오른쪽에 강원을 지어 이 공간을 훼손했다. 요즘에는 업적주의가 만연해서, 어느 주지가 뭐 지어놓고 갖다든 후문을 꼭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야외 불상의 조성을 줄여야 한다. 과거에는 저 멀리서도 보이는 대형불상의 위엄을 통해 민중 심리를 자극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낭비에 불과한 부질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동양 최대가 왜 필요한가. 그 작품이 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결들여져야 그것이 최고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 불교계는 세계 최대, 동양 최대에 너무 집착한다. 사찰의 재정정책도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현대의 예산 회계에 따르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관리는 개신교처럼 신도회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신도들은 마음 놓고 사찰에 재산을 헌납하거나 보시에 동참할 것이다. 모든 사찰운용의 기본은 스님들이 하더라도 신도들의 감시자 역할 또한 중요하다.”

-“방생법회는 반드시 중지돼야 마땅”-

이 소장은 이어 “스님들이 방생법회는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래종들을 마구 잡이로 풀어놓음으로써 오히려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소장은 “불살생계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는 생명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생물들을 죽이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불교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가감없이 던진 이 소장은 “내가 불교계를 비판을 많이 해서 심기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비판은 진심으로 불교를 아끼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자신의 불교인연을 잠시 이야기 했다.

“내 아버님은 주역을 공부한 분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속에 데리고 다녔다. 낮에는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유학자이면서도, 유불선 합일사상을 신념처럼 갖고 있었다.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젊었을 때부터 불교가 참 좋았다. 한때 불교시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여러 스님들을 만났는데 광덕스님 그리고 비구니 광우 스님으로부터 불교를 배우기도 했다. 불교를 참 좋아해서 20대 후반에는 중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모 스님을 찾아갔다. 그때 마침 그 스님이 총무에게 돈 문제로 야단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향세우는지, 저런 인격 밑에서 중노릇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 출가를 포기하고 내려왔다. 스님이 되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말이 너무 많아서이다. 스님이 되면 묵언을 해야 하고, 묵언하려면 수양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말이 많다. 또 한가지 큰 이유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이다. 술을 끊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산사에 조금 있다가 바깥에서 한잔 싶어 나와 버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가자로 살아오면서 바깥에 비친 불교의 모습에 때론 실망도 하고 때론 화도 나지만 그럼에도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불교라고 항상 생각해오고 있다.”

-“불교는 민족문화에 지대한 기여한 민족종교”-

이 소장은 이어 “불교는 우리 민족문화에 지대한 기여를 한 민족종교”라며 “고대에 있어서 불교가 기여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살생의 정신에 따라 순장이 없어진 것”이라고 꼽았다. 이 소장은 “중국에서도 15~6세기까지 순장이 이어졌고 황제 죽었을 때 젊은 궁녀들을 꺼묻은 증거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순장을 없앴던 것은 불교의 유입에 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불교야말로 한국인권사에 큰 기여를 한 사상”이라며 “삼국시대 왕들은 자신이 부처인양 자비를 보여주는 시책들 많이 보여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쟁이 끝나자 무기들을 녹여 농기구로 만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교화의 모습이 불교의 전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불교는 융통성이 아주 많은 종교이므로, 오늘날의 한국불교도 융통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산 속에서 평생토록 선 수행하는 이들은 불교의 세속화를 자제하는 본보기로, 분명히 있어야 하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승이 아닌 다른 승려들은 현대화된 사회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기 안먹고 술 안먹고 사회에 대중에 도움 아무것도 안주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 실천이나. 금불상 조성한다고 극락왕생 하나”고 반문하면서 “불교의 근본은 중생제도, 자비의 실천인 만큼 사회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실천이 따라야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다. 그 대표적인 것이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오늘날 종교간, 지역간, 민족간 갈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집단으로 불교는 교리로 보나 전통으로 보나 어느 종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불교가 세계 평화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불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국인권사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이같은 전통은 오늘날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불교가 인권운동에 나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권운동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실천운동”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국불교가 평화운동, 인권운동에 앞장선다면 한국불교의 위상은 미래 사회에 활짝 열릴 것이요, 역사적, 종교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붓다에서 발췌-

최고 천재 사리불의 공부법 - 한 단계 씩 닦아야 '법의 장수'

초선단계에선 그 경지를 궁극적 경지 삼아, 선불리 더 높은 곳 향해 조바심 내지 않아

존자 사리불에게는 아시다시피 '지혜제일'이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초기경전을 읽어보면 모든 면에서 명쾌하기 이를 데 없는 앎을 갖추고 있기에 그저 단순히 '지혜제일'이 아니라 넓은 지혜, 큰 지혜, 빠른 지혜, 명쾌한 지혜, 꿰뚫어보는 지혜, 예리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찬탄을 부처님에게서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이런 찬탄을 받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두뇌를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리불 존자가 어떻게 사유를 진행해나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경전이 있어 눈길을 끄니다. 예를 들면 색계 초선(初禪)의 경지에 들었을 때는 그 경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태의 일어남과 유지됨, 그리고 사라짐을 고스란히 자각하고 있으며, 그 경지에 빠져들지도 뉘이지도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낼 뿐만 아니라 초선의 경지에 들어

있을 때는 그 경지가 사리불에게 궁극적 경지인 것이요, 선불리 그보다 더 높은 경지를 향해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유하고 몰두하고 관조하여 그 궁극의 상태를 온전히 경험하면 그제야 이보다 더 닦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졌기에 사리불 존자의 지혜는 으뜸이었고, 부처님이 그를 가리켜 법의 장수라고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맞지마 니까야(아누빠다숫따)에서 일러주는 사리불 존자의 공부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리불 존자의 공부법을 경전 속에서 만나고보니 현대인들이 부처님 법과 만나는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요즘 같은 기초교리 강의가 있었을까요? “1 교시에는 삼법인을 강의하고, 2 교시에는 사성제, 3 교시에는 팔정도를 강의하고, 2 학기에는 십이연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계획서 같은 것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대하셨을 리는 없을 테지요. 매일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누군가가 쏟아내는 낯두리가 그날 법문의 주제가 되었을 테지요. 예정되어 있는 법문이란 없었고 게다가 부처님의 법문은 온통 라이브였으니,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스님이나 신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귀를 쫓긋 세우고 집중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유가 이미 깊어 있어서 연기법의 심오한 이치를 주제로 부처님과 즉문즉답도 충분히 하였을 테고, 어떤 사람은 연기법이니 인과법이니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배고픔을 면할 길을 설명하는 부처님의 법문이 그에게는 제일의제(第一義諦)요, 진제(眞諦)였을 터입니다.

법의 장수라 불린 사리불 같은 분도, 천하의 바보 주리반특도, 희대의 살인마 양굴리마라도, 어머니와 딸과 함께 남편을 사이에 두고 천륜이 찢기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여인 연화색도 부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나 혹은 인생의 거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불교교리에 대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리 만무입니? “무상, 고, 무아는 삼법인이고, 고집멸도는 사성제라는 건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그 대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다”면서 “그거 말고 마음의 번뇌를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명쾌한 가르침을 일러 달라”고 했을 리 만무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지금 내게 피를 말릴 정도의 문제가 닥쳤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하는 저마다의 숙제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처님을 뵈고 법문 듣는 그 순간은 생사의 기로에서 팔각 팔각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을 테고, 당장 귀에 들려오는 법문 한 자락에 몰입하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법문을 낱낱 살살 음미하였을 터입니다.

이미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종교 입문: 올바른 종교의 선택 기준

올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저마다 자신들의 교의만이 참된 진리임을 표방하는 많은 종교들이 혼재하고 있어 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종교들은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기 힘든 형이상학적 교설로부터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어 어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종교가 참으로 올바른가를 가려내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만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신자를 모으기 위해 현세적인 이익을 앞세우거나 그와 같은 이익을 미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종교여야 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된 다스니 소원이 이루어진다스니 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들먹여 금품이나 기타의 것을 요구하는 종교들은 거짓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과법칙에 입각한 건전한 사회윤리의식이 살아 있는 종교여야 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인과율이 무시된 허황된 믿음이나 의례만으로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는 그릇된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셋째, 진리에 임하는 태도가 합리적인 종교여야 하겠습니다. 교조적인 가르침만을 반복하거나 과학적 사실에 위배되는 맹목적인 믿음만을 강요하는 종교는 올바른 종교일 수 없습니다.

넷째, 진정으로 인간을 화해시키는 종교여야 하겠습니다. 걸 으로는 화합과 융화를 표방하면서도 신자와 비신자, 자기 종교와 타종교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종교는 참된 가르침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종교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종교라면 그 종교 자체의 진정한 존재의의인 동시에 그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요리: 들깨국수

들깨국수는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담긴 사찰 전통요리입니다. 부다나라 불자님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신심도 갑절, 씩씩하게 이번 여름을 나십시오.

참깨 못지않게 들깨가 불로장생의 식품으로 알려진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과 여러 종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리나놀, 페리라알데하이드 등의 방향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식욕을 돋우기도 합니다. 소염 작용과 소담 및 활자의 효능이 있으며 변비에도 좋습니다. 피부도 고와 집니다.^^

재료: 밀가루 3컵, 물 2/3 컵, 들깨 1 컵, 물 3 컵, 애호박 1/2 개, 표고버섯 4 개 소금, 깨소금, 식물성 기름, 깻잎(반죽용: 깻잎은 믹서에 물과 같이 넣어 갈아서 즙을 냅니다.)

만드는 법 (아주 간단하지만 잘 모를때에는 언제든지 사찰로 문의해 주세요, 질문 환영합니다.):

1. 밀가루를 깻잎물로 반죽하여 밀대로 알파하게 밀어 5 센치 폭으로 민 다음 곱게 체치듯이 썬다.
2. 들깨는 잡티를 골라내고 물에 푹 담갔다가 물을 부어가며 맷돌이나 믹서에 간다.
3. 애호박과 표고버섯은 각기 채 썰어 기름을 두른 팬에 볶다가 간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맞춰 따로 담아 둔다.
4. 냄비에 물을 붓고 곱게 간 들깨즙을 넣고 끓이다가 칼국수를 넣어 삶는다. (주의: 끓일때 국물을 넘기지 않아야 들깨 맛과 향을 제대로 낼 수 있다.)
5. 상에 낼 때는 볶은 애호박과 표고버섯을 웃기로 얹어 낸다.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2009년 12월부터 새로운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5월 28일 (음력 4월 15일) 부터 약 3개월 동안 하안거 결재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부다나라 불자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수행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뜻깊게 여름 한 철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 8월 9일(월요일) 부터 8월 13일(금요일)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미주 중부 승가회 주최 “청소년 템플 스테이”가 시카고 불타사에서 가집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기다립니다. 참가 문의는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불국사)와 시카고 불타사로 해 주십시오. 참가대상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포닥 또는 30세 중반연령까지 참가비: 무료 여름 템플스테이 주소: Bultasa Buddhist Temple, 436-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 심신이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더운 여름입니다. 이런때일수록 마음을 집중하여 법회에 참석해서 청량제와도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범우님들과도 서로 교류하며 지냈시다. 성불합시다.

2010년 6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40번 갑인생 무루심 이은영, 344번 갑진생 오상용.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사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